

코스피 1900 돌파



코스피지수가 12일 1,909.75로 장을 마감하면서 1,900시대를 활짝 열었다. 종시 전문가들은 코스피지수 1,900 시대 개막은 기업들의 실적과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쌍끌이' 양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선·기계 등의 '굴뚝주' 와 함께 하반기에는 정보기술(IT)주마저 본격적인 실적 회복과 주가 상승이

기업실적·넘쳐나는 여윳돈 '쌍끌이'

기관, 외국인 제치고 주도 세력 등장 조선·기계·IT '지수 2000' 이끌 듯

기대되고 있어 꿈의 지수로 불리는 '지수 2,000' 시대도 멀지 않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실적과 유동성이 상승 이끌어 = 최근 국내 증시의 급등세는 기업 실적의 호전과 유동성 확대라는 두 요인이 한꺼번에 작용하고 있어 상승 추세가 힘차리 꺾이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국내 증권사들이 추정한 215개 주요 상장기업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지난 해 동기 대비 8.9%, 영업이익은 14.1%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조선과 기계, 해운업종이 초호황을 맞고 있는데다 고유가로 막대한 오일달러를 벌어 들이는 중동국가들이 밭주하는 초대형 플랜트를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수주하는 것 등이 실적 개선의 원동력이다.

더구나 LG필립스LCD가 최근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2.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등 DRAM과 LCD 가격이 바닥을 지나 상승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 LG전자 등 IT기업마저 실적 개선 행렬에 동참할 전망이다.

여기에 시중유동성은 불에 기름을 부은 듯 증시의 급등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되고 있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말 기준 광의유동성 잔액은 1천13조5천억원으로 전달보다 25조4천억원(1.3%)이나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무려 12.2%의 증가율을 보였다. 흥국증권 최창하 투자전략팀장은 "금리 인상에도 글로벌 조과유동성이 쉽게 통제되며 어려운 환경에서 국내에서도 시중의 넘치는 부동자금이 지수 랠리를 지속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관이 시장 주도, 지수 2,000도 눈 앞=증시로 유입된 풍부한 자금을 손에 쥔 기관이 매수주체로 나서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8일 증시가 1,800선을 돌파한 후 18거래일 만에 장중 1,900선을 돌파한 것은 기관의 매수여력이 가장 큰 힘을 발휘했다.

이 기간 외국인은 1조8천24억원이 치의 주식을 국내증시에서 팔아치운 반면 기관은 9천226억원의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기관의 매수여력은 4월 이후 국내 증시가 호조를 보이면서 연초 해외 증시로 향했던 시중 부동자금이 다시 국내 주식형 펀드로 유턴한 것이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두바이유 배럴당 70달러 돌파

11개월만에 최고치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11개월만에 다시 배럴당 70달러선을 넘어섰다.

12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1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70.30달러로 전날보다 0.58달러 상승했다.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70달러 이상에서 움직였던 것은 지난해 8월 11일이 마지막이었다. 두바이유의 사상 최고가는 지난해 8월 8일 기록한 배럴당 72.16달러다.

그러나 뉴욕과 런던의 원유 선물은 미 국의 휘발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선물 최근월물은 전날보다 0.25달러 내린 배럴당 72.56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은 0.96달러 떨어진 75.44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주간 석유재고 조사 결과 미국의 휘발유 재고 증가폭은 로이터의 사전 예상치 90만 배럴보다 많은 120만 배럴을 기록하며 2억 560만 배럴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글로벌 500대 기업 한국 14개사

美 월마트 1위…삼성전자 46위

현대重·S-오일 첫 진입

월마트가 11일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선정됐고,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 14개도 글로벌 500대 기업순위에 올랐다.

미국의 경제전문지인 포천은 11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한 최신호(7월23일자)에서 올해 최고 글로벌 기업으로 매출 3천511억3천900만달러, 순익 112억8천400만달러를 기록한 월마트를 뽑았다.

또 지난 해 1위에 올랐던 엑손모빌(매출 3천472억5천400만달러, 순익 395억 달러)이 2위를 차지했으며, 로열 더치 쉘, BP, GM, 도요타자동차, 쉐브론, 디얼리크라이슬러, 코노코필립스, 토텔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고유가로 인해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6개가 석유관련 기업이었다.

한국기업으로는 삼성전자 매출 894억7천600만달러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46위에 올랐다.

그 외에 LG(73위), 현대자동차(76위), SK(98위), 한전(228위), 삼성생명(229위), 포스코(244위), 국민은행(349위), 한화(374위), KT(388위), 현대중공업(422위), 삼성(436위), SK네트워크(438위), S-OIL(491위) 등 모두 14개 기업이 글로벌 500대 기업으로 선정됐다.

한국 기업은 작년에 12개 기업이 글로벌 500대 기업으로 뽑혔었다.

포천은 글로벌 500대 기업의 매출이 전년보다 10.4%(21조달러) 올랐으며 순익은 25.9%(1조5천억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이 선정한 아시아 50대 기업에는 한국 기업이 6개가 오른 반면에 일본기업이 절반이 넘는 31개를, 중국기



입이 8개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아시아 최대 기업인 도요타자동차를 뛰어이 2~4위 기업에 모두 중국 기업이 등록, 중국의 엄청난 경제성장을 실감케 했다. /연합뉴스

더이상 방치땐 株價 조정시 후유증 판단 年内 추가 인상 관측… 수출 경쟁력 타격

넘쳐나는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통화당국이 콜금리 인상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8월 연 4.50%로 콜금리를 인상한 이후 11개 월만에 금리를 다시 올린 것은 급격한 유동성 팽창을 더 이상 방지하기 곤란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5월중 광의유동성(L)은 전월보다 25조4천억원이 증가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2% 증가했다. 6월중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증가액도 8조3천4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은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 그동안 지급준비율을 인상과 총액대출한도 축소 등의 미세 조치를 취했으나 유동성 팽창을 막는데는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해 이번에 콜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고삐풀린 유동성 증가세를 제어하는데는 이번 한 차례의 콜금리 인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연내 최소 1차례 더 추가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부동산 시장 규제로 시중자금이 증시로 몰려들고 있으나 주가 조정이 이뤄지면 이 자금이 결국 부동산 시장과 열을 재연시키거나 또 다른 거품을 야기할 것이라는 통화당국의 시각도 콜금리 인상의 배경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급증한 통화량이 기업의 생산현장으로 흘러가는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잉 상태인 유동성의 양(量)에 더 주목한다"면서 "적수준을 넘어서 유동성은 반드시 후유증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삐풀린 유동성 증가세를 제어하는데는 이번 한 차례의 콜금리 인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연내 최소 1차례 더 추가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회의원들은 공인회계사법과 세무사법, 관세사법을 비롯해 변리사법, 공인노무사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법무사법 등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제출된 이들 법률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사'자 돌입 전문직 자격의 취득과 유지, 업적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관련 업무에 장기간 종사해



전문가들은 시중 유동성이 위나 풍부해 한차례 콜금리 인상으로는 유동성 제어 효과가 없는 만큼 1~2차례에 걸친 금리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콜금리 인상이 환율이나 성장률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우려하고 있다.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중소기업들은 금리 인상이 원·달러 환율 하락압력을 가중시켜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기업 채산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회계사·세무사시험 공무원 특혜 사라지나

일부 과목 면제 폐지 추진

각종 자격시험마다 관련 직군에 종사해온 공무원들에게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혜택 제도를 모두 없애는 법률안이 제출돼 주목을 끌고 있다.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무소속 임종인 의원을 대표로 11명의 국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들에게는 1차 시험 자체를 면제하거나 1차 또는 2차 시험에서 일부 과목의 시험을 면제해주는 혜택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자격증은 장기간 해당 업무에 종사해온 공무원의 전문성을 인정해준다는 취지는 있지만 수십 대 일에서 수백 대 일의 피니는 경쟁을 벌여야 하는 일반 수험생들이 비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은 모두 공무원들에 대한 시험면제 혜택의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연합뉴스

대부업체 불법행위 조사

금감원 이달부터 80개사 폭리 여부 등

대부업체들의 폭리와 불법 채권 추심 등에 대해 금융감독국이 현장 조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중대형 대부업체 80여개를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대부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업체는 2곳 이상의 시·도에 등록해 영업하거나 월평균 대부자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로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했다.

검사 대상에는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일본계 대부업체 등 대형 대부업체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들이 ▲대부업법상 이자율을 상한선(연 66%)을 지키고 있는지 ▲대부업 등록번호와 연체 이자율, 상환 기간과 방법, 부대비용 등을 담은 대부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 교부하는지 ▲광고 때 대부 조건 등을 알리고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을 가하거나 가족 또는 직장 동료에게 체무 사실을 알리는 등 불법 행위를 하는지도 조사한다.

금감원은 위법 행위가 드러난 대부업체는 관할 시·도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나 영업 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 제재를 하도록 하고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대부업법은 불법 행위를 드러난 대부업체는 관할 시·도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나 영업 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 제재를 하도록 하고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취